

北韓의 都市開發政策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Urban Development Policy in North Korea

金 源

(서울市立大學校 大學院長)

< 목 차 >

- I. 해방전 北韓都市의 형성
- II. 북한의 특별시, 직할시, 일반시
- III. 북한의 都市開發
- IV. 平壤도시개발
- V. 맺는말

I. 해방전 北韓都市의 형성

북한의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어왔고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자면 우선 일제식민지시대의 북한지역이 일본의 침탈화와 對北進정책에 어떤 역할을 해 왔었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방이후 金日成정권 45년간 이른바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북한도시가 어떤 기능을 수행해 왔는가를 연계 고찰함이 옳은듯 하다.

우리나라 韓半島에는 해방전 1944년을 기준으로 21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해방될 당시 북한지역에는 10개의 도시가 소재해 있었으며 오늘날에는 도시수가 22개시로 증가하였다.

<표 1-1>에서 보듯이 1920년대의 우리나라 도시화의 초기단계에만 해도 도시의 수

는 12개뿐이었고, 이 가운데 北韓지역에는 5개가 있었다. 이것이 해방할 무렵에 와서는 모두 21개로 늘어왔고, 이 가운데 북한지역에는 10개의 도시가 소재해 있었다.

북한지역에 이토록 도시가 많이 발달되었던 것은 지정학적 이유와 지하자원이 풍부하다는 이유때문에 특히 港灣도시와 공업도시가 발달하였으며 내륙도시는 거의 성장하지 못했다. 다시말하면 도시화의 초기단계였던 1920년대까지만해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대륙진출의 전진기지로서 도로망 확충에 의한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은 극히 미약했었다. 따라서 도시란 농경사회의 상업적 및 정치적 지원성격을 띠고 있었을 뿐이었다.

1930년대가 되면서 都市化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그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정치는 물론, 북한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에 본격적인 착수가 가해졌다.

<표 1-2>에서 보듯이 滿洲事變기간인 1930-1985년 기간에 도시인구 가운데 滿露 접경지인 淸津이 별안간 각광을 받으면서 평균성장률 35.1%를 훨씬 상회하여 성장하였다. 그리고 같은 기간 남쪽에서는 大田이 급성장을 했는데 이는 1932년 충남도청을 公州

에서 대전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진이 무려 49.5%나 성장한 것은 어찌됐건 일제의 대륙침략전제의 결과로 청진이 만주에의 門戶로서 역할을 하면서 北滿州철도선과 京圖線의 종착항이 되었으며 日本과 만주를 연결하는 중계항으로의 역할을 해 왔던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¹⁾

이때문에 평균 20%의 성장을 했던 도시들 모두가 항구도시인 원산, 신의주, 인천, 부산,

목포, 진남포 등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특히 만주사변(1931년)이후 中日戰爭(1935-40)이 발발하고 부터는 일본이 대륙진출에 있어서 북한지역을 병참기지화하려고 군수산업을 근간으로 工業都市를 육성하였다. 이당시 제철, 특수강제련, 모직섬유공업 등 군수산업이 대량으로 육성되어 1936년 당시 전국에 5,927개의 공장이 있었던 것이 1943년에는 14,856개로 증가하였다.²⁾

<표 1-1> 都市別人口(人口順位)(1920~1944)

(單位 10,000人)

年度 順位	1920		1925		1930		1935		1940		1944		비고
1	서울	24.7	서울	34.2	서울	39.4	서울	44.4	서울	93.5	서울	98.8	
2	부산	7.3	부산	10.6	부산	14.6	부산	18.2	평양	28.5	평양	34.1	*
3	평양	5.8	평양	8.9	평양	14.0	평양	18.2	부산	24.9	부산	32.9	
4	대구	4.4	대구	7.6	대구	9.3	대구	10.7	청진	19.7	인천	21.3	
5	인천	3.5	인천	5.6	인천	6.8	인천	8.2	대구	17.8	대구	20.6	
6	원산	2.7	원산	3.6	개성	4.9	목포	6.0	인천	17.1	청진	18.4	*
7	진남포	2.1	진남포	2.7	신의주	4.8	원산	6.0	원산	7.9	신의주	11.8	*
8	목포	1.6	목포	2.6	원산	4.2	신의주	5.8	함흥	7.5	원산	11.2	*
9	마산	1.6	신의주	2.3	진남포	3.8	함흥	5.6	개성	7.2	함흥	11.2	*
10	진남포	1.3	마산	2.2	청진	3.5	개성	5.5	진남포	6.8	광주	8.2	
11	군산	1.3	군산	2.1	목포	3.4	청진	5.5	광주	6.4	해주	8.2	*
12	청진	1.0	청진	2.0	마산	2.7	광주	5.4	목포	6.4	진남포	8.2	*
13					군산	2.6	진남포	5.0	해주	6.2	대전	7.6	
14							진주	4.2	신의주	4.7	목포	6.9	*
15							군산	4.1	전주	4.7	목포	6.9	
16							대전	3.9	대전	4.5	성진	6.8	*
17							마산	3.6	진주	4.3	전주	6.7	
18									군산	4.0	군산	5.7	
19									나주	3.8	마산	5.4	
20									마산	3.6	진주	5.2	
21											나주	3.4	
											북한	10개	

資料：洪慶姬 韓國都市研究, 1979, P.26.

1) 홍경희, 「한국도시연구」, 1979. 1
 2) 앞의책 37면

<표 1-2> 日帝時都市成長率(1920-44)

年度 人口 比率 都市名	1920-1925		1925-1930		1930-1935		1935-1940		1940-1944		1925-1944	
	人口	比率	人口	比率	人口	比率	人口	比率	人口	比率	人口	比率
		(%)										
서울	95,159	38.4	51,614	15.1	49,858	12.6	491,366	110.6	53,073	5.7	645,911	188.5
부산	33,059	44.9	39,456	37.0	36,405	24.9	67,231	36.8	79,481	31.8	222,573	208.7
평양	30,793	52.5	51,280	57.3	41,418	29.4	103,844	57.0	55,689	19.4	252,231	282.1
대구	32,329	73.1	16,785	21.9	14,095	15.1	71,509	66.6	27,715	15.5	130,104	169.9
인천	20,387	56.8	11,842	21.0	14,860	21.8	38,168	106.2	42,668	24.9	157,538	279.8
원산	9,162	33.6	6,339	17.4	17,409	16.1	19,151	31.8	33,581	42.3	76,480	209.9
진남포	5,896	27.6	11,056	40.6	12,216	31.9	18,144	35.9	13,488	19.6	54,904	201.6
목포	10,298	62.7	7,971	29.8	26,045	26.8	3,522	5.8	5,013	7.8	42,551	159.3
마산	6,835	42.6	5,011	21.9	3,893	14.0	4,651	14.6	18,025	49.5	31,580	138.1
신의주	9,393	68.1	24,871	107.3	10,415	21.7	2,681	4.6	57,255	93.6	95,222	410.7
군산	7,892	57.7	4,762	22.1	15,377	20.7	-1,145	-2.7	17,036	42.0	36,030	167.1
청진	10,253	94.9	15,276	74.0	19,605	49.5	142,388	256.4	-13,617	-6.9	163,652	792.5
개성				6.9	6,017	12.2	16,525	29.8	4,298	6.0		
전주				70.1		9.8	4,843	11.4	19,865	42.1		
광주				66.3		38.4	9,913	18.2	17,911	27.8		
함흥				38.4	12,720	29.0	17,749	33.1	36,837	48.9		
대전							6,480	16.6	31,134	68.4		
해주								102.6	19,666	31.4		
진주									9,948	23.0		
나주									-3,929	-10.3		

資料：洪慶嫻. 韓國都市研究, 1979. 9. 27

<표 1-2>에서 보듯이 이 기간중에 북한 지역의 공업기지과 항구도시들이 전례없이 급성장을 한 것은 이때문이다. 청진이 25.6% 증가하여 대구를 누르고 우리나라 제4위의 도시로 급성장을 하였다.

1940년대(1940-1944)에 와서는 일본이

太平洋戰爭을 일으켜 그들의 패전이 확실해 지자 도시인구를 전략적으로 시골이나 소도시등으로 소개를 했기에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 도시인구통계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심빙할 수 없다.

북한은 이렇듯 일본의 대륙침략의 범참기

지로서 군수산업과 중공업이 많이 발달되어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어서 이들 화물과 사람들의 이동기지인 공업도시와 항구등이 크게 발달하였음이 특징이며 그것이 오늘날 북한도시발달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解放당시 북한도시를 도별로 그 분포를 보면 <표 1-3> 과 같다.

<표 1-3> 해방전 북한의 도시

1944년 현재

도	시
함경북도	청진, 성진(김책시), 나진
함경남도	함흥
평안남도	진남포(남포), 평양
평안북도	신의주
황해도	해주, 개성
강원도	원산
6 개 도	10개시

함경북도에 청진, 성진(김책시, 나진의 3개시, 함경남도에 함흥, 평안북도에 신의주, 평안남도에 진남포(남포), 평양, 황해도에 해주, 개성, 강원도에 원산등을 합해 모두 6개도에 10개 도시가 이었다.

이들 도시의 해방전 인구규모는 <표 1-4> 와 같다.

<표 1-4> 해방전 북한도시인구

1944년 현재

도시명	인구(단위 1,000명)
평양	34.1 천명
청진	18.1
신의주	11.8
원산	11.2
함흥	11.2
해주	8.2
진남포	8.2
개성	7.6
성진	6.8
나진	3.4
10개시	118.9

평양이 당시 우리나라 서울 다음의 제2위의 대도시로서 인구 341천명으로 북한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으며 나진이 3만4천으로 가장 적었다.

1944년 우리나라 총인구 2,590만명에 남북한 도시인구는 3,338,3천명으로 도시화율은 보잘것 없었다. 그리고 북한에 있던 10개 도시의 총인구는 118.9천명에 남한 219.4천명에 비해 열세였다.

그런데 이들 북한도시들의 위치를 보면 서해안에 신의주-해주축, 동해안에 청진-원산축으로 이어지는 해안개발 형태를 형성하고 있다. 김일성 정권은 지난 45년간 서해안축을 내륙으로 연결짓는 東-西軸의 망구축이 시급을 요하여 이 사업을 이른바 그들의 社會主義建設 사업과 직결시켜 나갔음은 의심할바 없다. 그리하여 김일성집권 45년간은 동서를 잇는 開發軸의 연결과 내륙지향적 도시개발에 정책의 중점을 주었다.

II. 북한의 特別市, 直轄市, 一般市

북한의 도시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또 북한의 都市制度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유는 통상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주민이동을 통제해 오고 있는데다가 북한처럼 지난 45년간 철저하게 외부세계와 차단하고 내부에 있어서 주민이동을 통제해 온 나라에 있어서는 都市化가 크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도시화과정과 都市制度에 관한

<표 1-5> 북한의 인구 성장 추세표 (추계)

단위 명

년도, 추계	국토 통일원 ¹	자유평론사 ²	북한 연구소 ³
1960년	10,789	-	-
1961년	11,042	-	-
1962년	-	-	-
1963년	11,568	-	-
1965년	-	12,252	12,225
1970년	13,600	14,002	14,002
1975년	15,940	15,795	15,796
1980년	17,580	17,691	17,691
1982년	-	18,489	18,489
1984년	-	19,324	19,324
1985년	20,100	19,755	-
1989년	21,375 ⁴	21,551	21,551
1990년	-	22,025	-

자료 : 1. 북한 경제 통계표 (1945-1985) P834

2. '87남북한 비교분석, P.15

3. 북한 총람. P.891

4. 국토 통일원 자료, 1990.9.

분석은 그와 같은 우리의 의문을 풀어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 1965년부터 인구통계를 전면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 北韓人口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없다. 북한 총 인구의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 都市人口를 분석한다는 것은 어쩌보면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른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정부와 민간연구기관에서는 북한전문가를 동원 1965년 이후의 북한 총 인구나 都市·農村인구를 추계하여 그 규모를 발표해 놓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와같은 통계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도시수와 각 도시의 인구규모를 연도별 집계를 함으로써 지난 45년간의 도시화추세를 분석하고 그것을 일제시대 때의 북한도시성장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1-5>는 국토통일원, 자유평론, 그리고 北韓研究所 등에서 1965년 이후의 북한 총인구를 추계하여 놓은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북한이 인구 1,000만을 넘어선 것은 1960년으로 보이며, 2,000만을 넘어선 것은 그로부터 15년후인 1985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 현재 북한의 인구는 대략 2,200만 정도로 추계되고 있다. 이 숫자는 한국의 4,500만에 절반정도에 이른다.

북한은 김일성이기 한국전이후 전후복구와 國家建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52년 12월 15일 勞動黨中央委員會 제5차 전회의에서 행정구역의 개편을 강조한바 있는데, 그 골자는 郡을 세부화하고, 그대신 面을 폐지하여 里를 강화하자는 취지였다.³⁾ 이에따

3) 김일성(선집 제1권), 1967. 384면

라 북한은 1954년 4월 23일, 헌법 제37조 제 8항의 『勞動者區』를 신설하였다.

중래의 大郡制에서 中郡制로 개편한후 각 군의 중심지에 읍을 두도록 하였다. 그러나 읍의 승격기준과 인구규모에 대해서는 알려 진바 없다.

그리고 1949년 1월 31일 평안남도와 함경 남도의 일부를 떼어 慈江道를 신설하고, 그후 1954년 10월 30일 함경북도의 일부와 자강도 일부를 합쳐 兩江道를 신설하였다. 그리하여 북한은 오늘날 한국처럼 9개도를 갖고 있다.⁴⁾

북한의 지방행정조직으로는 특별시·직할 시·시·군·리가 있고, 특히 도시지역으로는 특별시 1개, 직할시 3개, 일반시 18개가 있다

있고, 일반시로는 18개가 있어, 도시의 수는 모두 22개가 된다. 1944년에 10개였던 것이 그후 45년만에 특별시 1개, 직할시 3개, 일반 시 18개, 모두 22개로 성장했다.

북한의 도별 일반시의 분포는 다음 <표 1-7>과 같다.

함경북도에 金策시(성진), 羅津, 함경남도에 함흥시, 신포시, 단천시, 양간도에 혜산시, 자강도에 희천, 강계, 남포, 평안북도에 신의 주, 구성, 평안남도에 순천, 덕천, 평성, 황해 북도에 송림시, 사리원, 황해남도, 해주, 강원 도에 원산등 9개도에 18개시를 갖고 있다.

<표 1-7> 북한의 道別 일반시

<표 1-6> 북한의 都市階層別수

1990년 현재

구 분	시	비 고
특 별 시	평 양	1946년 승격
직 할 시	청 진	1960년 승격
	개 성	1972년 승격
	남 포	1979년 승격
일 반 시	18개	
계	22개	

1. 남포 직할시 행정구역내에 대안시 포함
2. 최근자료에 의하면 청진이 일반시로 취급 되고 있음.

<표 1-6>를 보면 평양특별시(1946년 승 격),⁵⁾ 직할시로는 청진, 개성, 남포등 셋이

1990년 현재

도 별	시 명
함 경 북 도	김책시(성진) 나진시 2개
함 경 남 도	단천시 신포시 함흥시 3개
양 강 도	운산시 1개
자 강 도	희천시 강계시 남포시 3개
평 안 북 도	신의주시 구성시 2개
평 안 남 도	평성시 순천시 덕천시 3개
황 해 북 도	송림사 사리원시 2개
황 해 남 도	해주시 1개
강 원 도	원산시 1개
9 도	18시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북한의 지방행정」1990. 58면.

5) 북한헌법에서는 1972년 개정이전까지는 서울을 수도 로 하고 평양을 임시 수도로 규정했으나 1972년에 평양을 북한의 수도로 한다고 개정했다.

그런데 여기서 咸興, 元山이 왜 직할시로 승격되지 않았는지 관해서는 알 수 없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함흥이 직할시로 되었다가, 다시 일반시로 강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진 역시 이제까지 직할시였던 것이 최근에는 일반시로 표기되고 있어서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⁶⁾

북한의 특별시·직할시·일반시의 위치는 다음 <그림 1-1>와 같다.

이처럼 북한은 특별시, 직할시, 일반시 등 3개의 市制를 갖고 있지만, 이것의 명확한 법적 승격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평양을 특별시로 한 것은 수도로서 北韓憲法에 규정하고 있어서 그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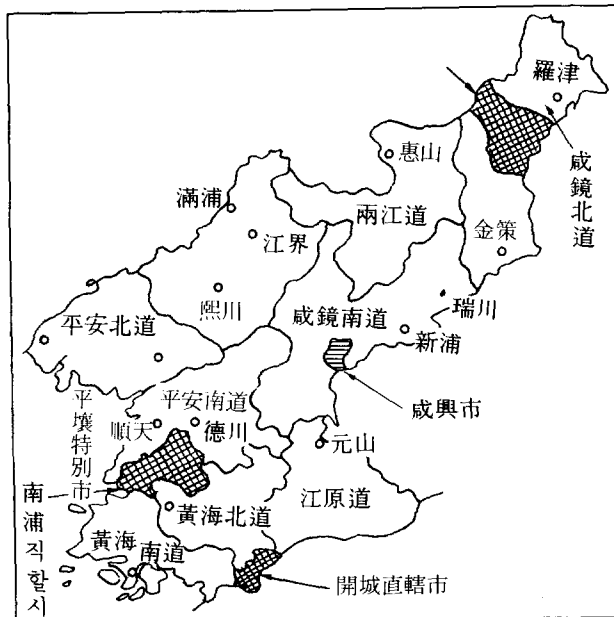
있지만 직할시와 일반시의 경우 그 기준이 애매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면 직할시로 해서 道로 부터 행정감독·통제를 벗어나게 하여 중앙정부인 內務部直轄로 하고 있고, 일반시의 경우는 통상 인구 5만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기타 사회, 경제 및 물리적 개발상태를 고려하여 승격해 준다.

북한의 경우를 보면 직할시로 승격되어 도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청진, 남포, 개성의 인구를 보면 일정하지가 아니하고 더욱이 일반시 가운데도 이들 시보다 오히려 인구가 더 많은 대도시도 있다.

한가지 객관적으로 이론화시킬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러한 人口規模가 들쭉날쭉함

<그림 1-1> 北韓의 特別市·直轄市·道 및 一般市



6) 1990년 4월 제9기 최고인민회의의 선거인구때 청진이 일반시로 기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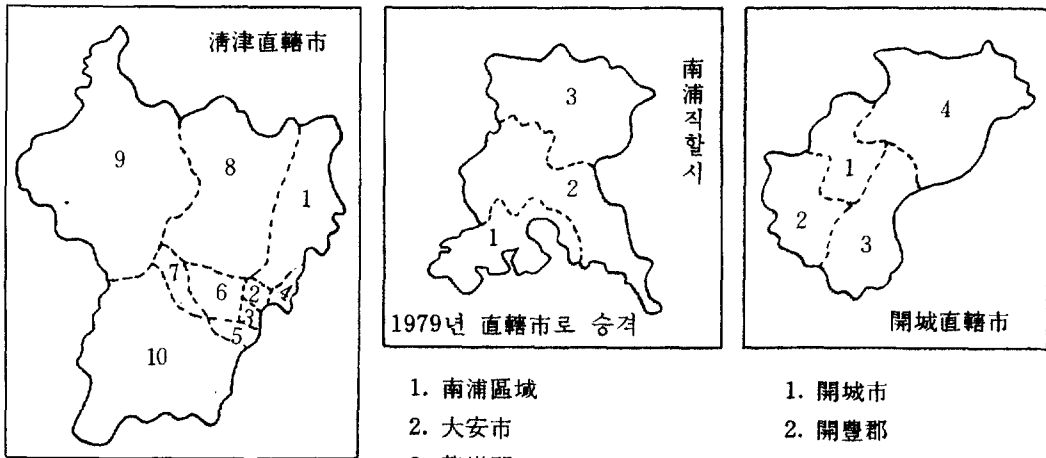
에도 불구하고 開城이 직할시로 지정된 것은 휴전선과 板門店에 가깝게 위치해서 외국인의 관광경우지이기 때문에 전략상 법적지위를 강화시켜 주지 않았나 해석되고 청진이 직할시로 지정된 것은 인구규모면에서 평양 다음으로 두번째 큰 도시인데다가 滿·조國境에 위치해 있다는 또 다른 차원의 전략이 있는듯 하다. 그리고 南浦가 직할시로 승격된 것은 평양근교 도시인데다가 外國觀光客의 접근이 용이한 도시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직할시가 갖고 있는 한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廣域都市의 성격을 띠고 있다

는 사실이다. 개성직할시는 개성시, 개풍군, 판문군, 장풍군 등을 1시 1구역 1군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직할시와는 좀 그 성격이 다른 상당히 광역적인 도시행정인 가능하도록 이중적 체제가 형성되어 있는듯 보인다. 청진직할시는 청암구역, 포항구역, 수남구역, 신암구역, 나남구역, 송평구역, 부분구역, 부영구역, 무산군, 경성역군 등 8구역 2군을 포함하고 있는 꽤 큰 규모의 도시이다.

북한직할시의 광역적구역은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淸津, 開城, 南浦직할시의 廣域地域



- 1. 淸岩區域
- 2. 浦港 "
- 3. 水南 "
- 4. 新岩 "
- 5. 羅南 "
- 6. 松平 "
- 7. 富潤 "
- 8. 富寧 "
- 9. 茂山郡
- 10. 鏡城郡

- 1. 南浦區域
- 2. 大安市
- 3. 龍岩郡

- 1. 開城市
- 2. 開豐郡
- 3. 板門郡
- 4. 長豐郡

Ⅲ. 북한의 都市開發

북한의 도시들은 6.25동란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그 기능을 상실할만큼 크게 파괴되었다. 북한은 이와같은 피해를 전후복구하기위해 3개년계획(1954-1956)을 수립하여 경제복구사업과 都市再建事業을 병행하여 벌렸다.

전후 북한 도시건설사업의 특징은 북한의 경제상태가 영세하여 전문인력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도시재건은 소련 위성국들의 지원에 의해 추진되었다. 東歐共產衛星國家들의 기술·자재의 지원에 절대적인 지원을 입고 1950년대 도시재건을 이룩한 도시들은 다음 <표 1-8>와 같다.

<표 1-8> 동구공산국의 지원도시

나라 도시	지 원 국	년 도
평 양	헝가리, 불가리아	1954-1957
함 흥	동 독	1955-1964
순 천	루마니아	1958-
원 산	폴란드	1954-1966
덕 천	체코	1954-1956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당시 소련은 아무 도시도 분담받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는 소련이 공산국 宗主國이자, 6.25전란의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로서 都市建設보다 북한전체의 재건에 치중을 하였던 것이다. 특히 당시 비료, 재철, 기계, 시멘트, 트랙터, 합판, 펄프, 목재 등 산업에 있어서 소련이 주로 지원해주고 도시건설은 동구 위성국으로 하여금 한

도시색을 맡아 책임복구사업을 벌리도록하였다. 그 결과로 북한도시들은 지원국들의 기술 도입에 영향을 입어 각 도시들이 지원국 스타일의 건축양식, 도로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평양은 헝가리, 불가리아의 도시스타일을, 함흥은 동독의, 순천은 루마니아의, 원산은 폴란드의 영향을 각각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전후초기복구작업이 끝나고 북한의 經濟가 어느 정도 自主段階에 들어간 1970년대 이후부터는 김일성이 직접 주요도시를 시찰하면서 都市綜合計劃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지시하기 시작했다. 이 시찰지사는 그후 그의 아들 金正日에 의해 현지지도형식으로 계속되고 있다.

김일성에 의해 직접 현지지도했다는 북한 지방대도시들의 도시개발 및 整備計劃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표 1-9> 金日成의 도시개발지시

도시	구분	기본방침결정
남 포	김일성현지지시	1981. 5.22
청 진	"	1976.
함 흥	"	1981.6.
원 산	"	1970.
해 주	"	1976.
평 양	"	1960

자료: 김영규, 북한의 觀光자원 및 개발실태, 1988. 국토통일원.

(1) 남포시 도시개발계획

1981년 5월 22일 김일성의 現地指導에 의

7) 김영규, 「북한의 관광자원현황과 개발실태」, 1988, 국토통일원, 8-21참조

해 수립된 南浦시의 도시개발기본방향은 세 가지이다.

첫째, 남포시는 평양의 관문이자 평양의 최대의 위성도시이며, 외국인의 출입이 빈번하므로 國際港口都市로 개발하며,

둘째, 북한 최대의 항구로 개발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며,

셋째, 북한 세부지역의 최대 工業地區로 육성하여 제철, 제련, 기계, 전자등 중공업읍을 집중개발한다.

김일성의 이와같은 기본방침에 의해 그후 金正日도 수차 현지도한 남포시는 1980년대에 와서 평양-남포간의 회랑도시로 연계화(conurbation)되어 있는 대도시권으로 발전하여, 남포시의 인구는 오늘날 754천명으로 추산된다.

(2) 淸津시 종합개발계획

淸進시의 도시개발기본방향은 첫째, 북한최초의 금속기지로 조성하고, 둘째, 대형화물선 건조기지로 육성하며, 셋째, 수산업을 발전시켜 원양업의 기지로 육성한다.

청진시는 1976년 「新市街地造成計劃」을 확정하여 남청진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였다.

신시가지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 강덕구능지대와 나남구역, 능포산 남쪽 해변으로부터 부윤골에 이르는 지역에 본청진 시가지의 1.5배에 달하는 신시가지들을 조성한다.

둘째 : 이 지역내 7층-15층의 고층APT를 건설하고

셋째 : 해수욕장, 유원지등을 개발하며

넷째 : 8만명수용 경기장과 2,000석 규모의

대극장을 신축하고

다섯째 : 14층규모의 학생소년궁전을 신축하며

여섯째 : 신시가지에 간선도로를 신설하는 것 등이다.

(3) 咸興시 도시개발계획

김일성은 1981년 6월 함흥시를 동부지역의 최대 화학기지로써뿐만 아니라, 동부지역의 최대 국제무역항으로 개발하려고 다음과 같은 개발계획을 현지지시하였다.

첫째 : 화학공장, 함흥비료, 2.8비닐론공장, 용성기계공장등을 현대화하고

둘째 : 도로정비 및 시가지를 조성하고

셋째 : 사포지구 APT단지를 조성하며

넷째 : 탁아소, 유치원, 靑少年宮殿을 건설하는 것 등이다.

(4) 海州市 개발계획

해주시의 도시개발계획은 다른 북한의 도시보다 일찍이 김일성의 현지도를 받아, 1976년에 기본방향을 확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 해주시를 북한의 정양, 온양도시로 육성하며

둘째 : 국제무역도시로 개발하고

셋째 : 경공업 및 산업중심도시로 육성한다.

이에 따라 해주시는 양상거리, 서산거리, 선물거리, 동해주거리 등 10곳의 거리를 확장, 정비하였다. 그리고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都市美觀 및 각종 위락시설을 확충하고, 주택개량 및 신축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이상에서 북한도시개발에서 찾아 볼 수 있

는 몇가지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토지가 국유화 되어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과 用途規制가 용이하며 정부에 의해 계획의 수립, 집행에 능률성이 보장되고 있다.

둘째 북한의 몇 도시개발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1960년대까지만 해도 도시개발 계획이란 것이 재건사업의 일환으로 동구공산국가들로부터 기술, 자재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재건사업의 대상지역도 도심부와 시가지에 국한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와서는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주의 건설의 혁명적 투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고 그것의 전신평과가 빠른 것이 도시건설이라는 것을 인식한 나머지 김일성의 체제확립과 도시개발사업을 연관시키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1970년대 이후 구시가지에는 도로를 확보하여 정비하고 신시가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그곳에 20층-30층규모의 고층 APT를 건설할 각종 체제 선전적 혁명기념회관과 시설물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와같은 새로운 경향의 도시건설이 80년대에 와서는 특히 김일성主體思想강화와 관련하여 지난 10년동안 전국 여러도시에서 활발히 추진되었다. 평양도시기본계획이 그중은 하나의 예이다.

IV. 平壤의 도시개발

(1) 일제때 평양도시발전

평양도시계획을 논의하자면, 우리는 먼저 일제때 평양시가 어떻게 형성하여 왔고, 그런

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평양은 다른 어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부터 城郭都市로 발전하였다. 개항기까지만 해도 평양은 내성, 외성, 중성으로 구획되어, 성안에는 조선인이 거주하고, 일본인들은 성내의 관지에 주로 관가를 형성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1905년 龍山-平壤간의 철도가 개통되자 양역을 성곽에서 멀리 떨어진 신시가지에다 건설하므로써 평양의 도시화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기 시작했다.⁸⁾

<그림 1-3>에서 보듯이 성곽도시의 구시가지의 朱替門에서 남쪽으로 멀리 벗어나 평양역을 건설하므로써 평양은 구시가지와 新市街地로 나누어 발전하기 시작했다. 성곽내의 구시가지에는 조선인, 남쪽의 신시가지에는 일본인이 거주하는 도시가 되었고, 일본인은 이곳에 신시가지를 「바둑판」街路網으로 계획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였다.⁹⁾

평양의 도시계획은 우리나라가 日帝植民地 점령하에 들어간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30년대까지 평양의 도시계획은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市區改正事業」이란 명목하에 부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¹⁰⁾ 1934년 6월 20일 朝鮮市街地計劃令(후 도시계획법의 모체)이 제정된 후, 1937년 4월 30일 최초로 평양의 장기기본계획이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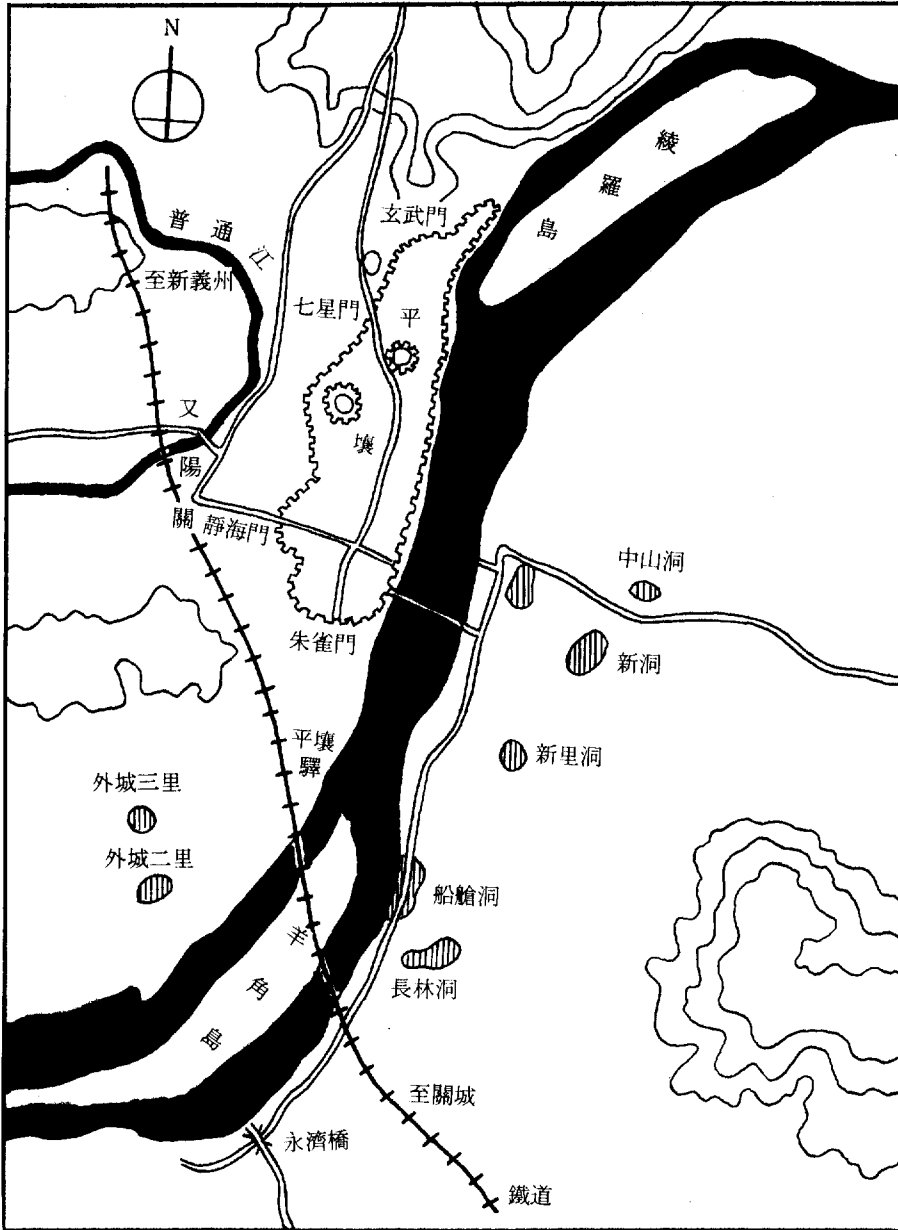
동계획에 의하면 일본은 계획년도를 통상 15년-20년으로 잡고, 평양의 목표인구를

8) 孫禎陸, 「한국개항기 도시화과정연구」, 일지사, 1982, 327면

9) 孫禎陸, 앞의책 328면

10) 孫禎陸,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1990, 일지사, 111면

<그림 1-3> 城廓都市의 平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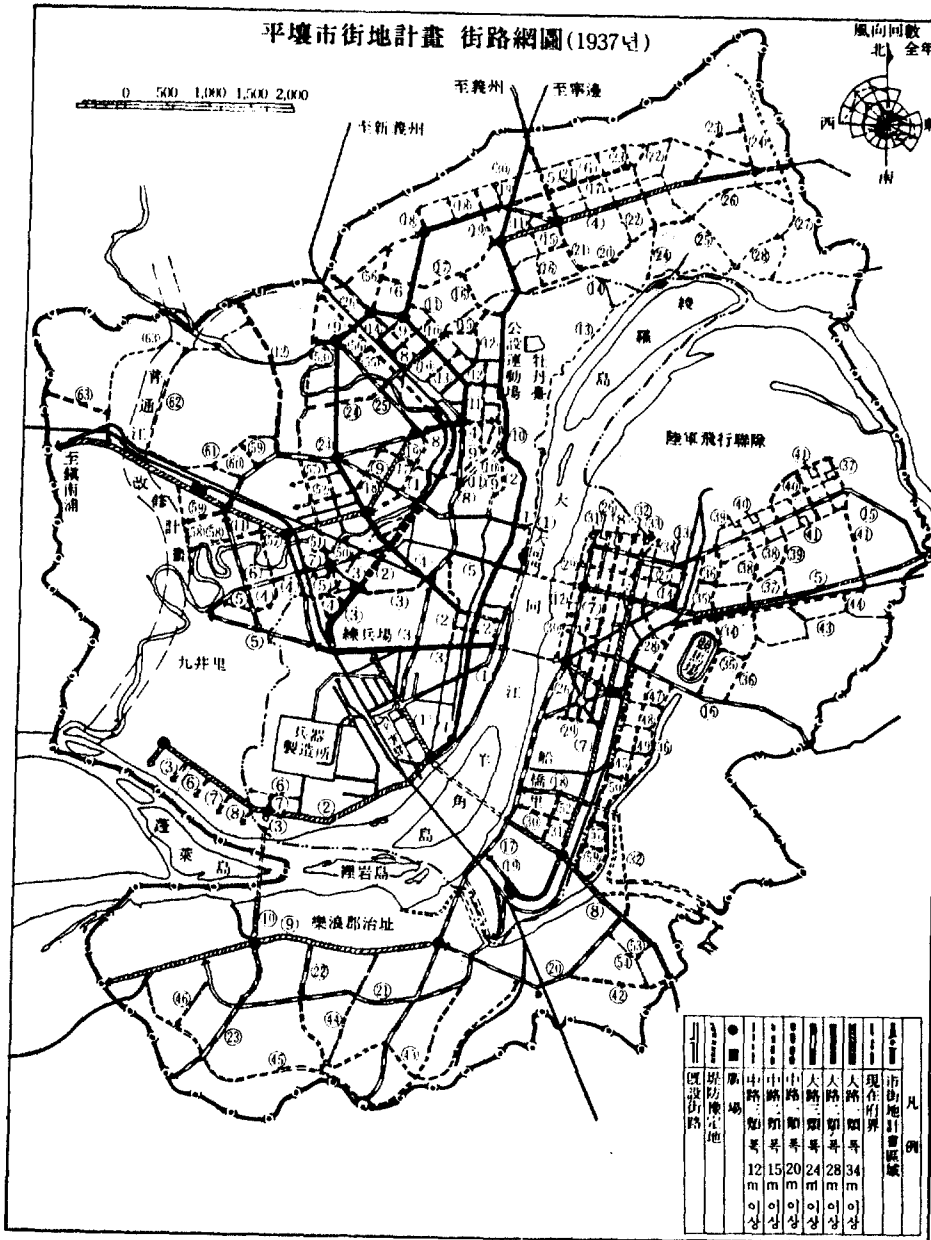
자료 : 孫禎睦, 앞의책, 1982. 382면

500,000명으로 책정하고, 계획구역면적 110, 985,000㎡에 가로구획연개사업을 실시하여 공업지구, 주택지구, 공원, 녹지 및 풍치지구

등을 지정하였다.¹¹⁾

11) 孫禎睦, 앞의책 198면

<그림 1-4> 平壤市街地 街路網圖(193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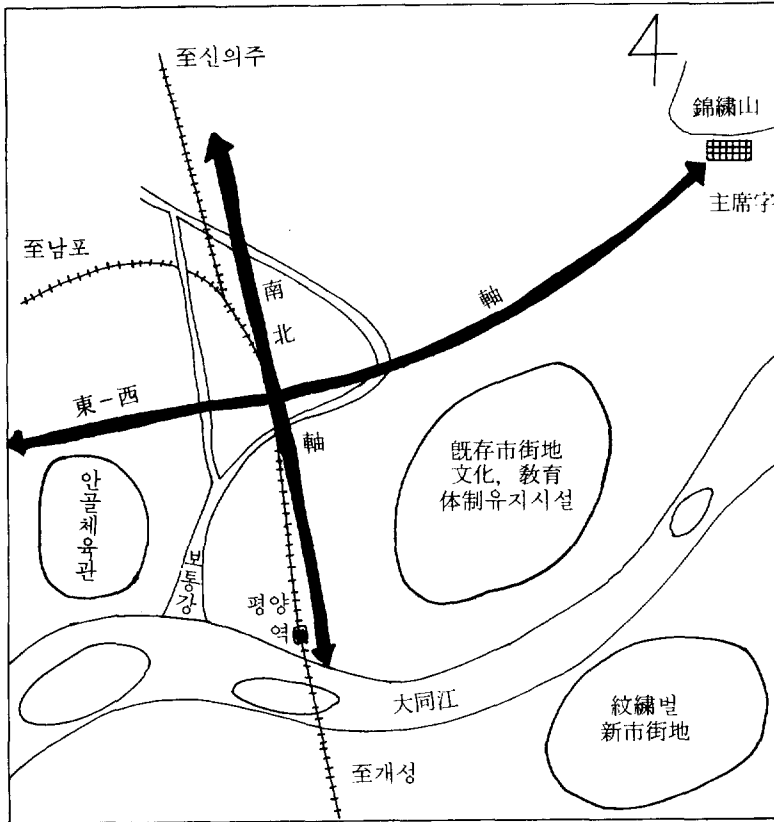


자료 : 孫禎陸, 앞의책, 1990.

<그림 1-5>에서 보듯이 당시 평양의 가로망계획과 도시형태를 보면 平壤都市計劃區域이 평양해정구역을 훨씬 넘어서서 주변을

계획구역내에 포함시켰으며, 가로망으로는 대로를 폭 34m-24m, 중로 폭 20m-12m로 분류하고 노선의 종류를 모두 63개노선으로

<그림 1-5> 平壤의 都市空間계획



계획하였다.

이 <그림 1-4>에서 나타난 평양도시의 공간적 특징은 대동강을 끼고 양안을 고루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성곽도시때의 평양이 대동강 북단을 끼고 동서축으로 발전 하였던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형상 평양은 동북쪽에 錦繡山을 끼고 서쪽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음으로 성곽도시의 형태도 이와 같은 자연적 지세를 이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때가 되면서 현대적 교통수단이 도입되고서부터 대동강의 綾羅島와 羊角

島 사이에 대동교, 옥류교를 연결, 평양의 도시패턴을 강북과 강남으로 균형있게 계획하였다. 오늘날의 평양도시계획은 일제때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도시기능 배치에 있어서는 전혀 상이한 사회주의적 형태로 개발하였다. 이점이 북한이 사회주의건설이란 구호아래 지난 45년간 평양을 「國際都市」화 또는 「公園속의 都市」건설을 목표로 도시개발을 하는데 온갖 정성을 경주하여 왔다.

(2) 1960년대 도시기본계획

일제때까지만해도 인구 34만의 도시였던 평양이 오늘날 290만으로 추계되는 대도시가 됐다. 이는 해방당시 평양이 5개區를 지니고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19區域, 3郡의 이른바 22개로 구성된 광활한 행정구역을 갖고 있음에도 잘 반영되고 있다.

북한의 대도시들은 우리와 달리 광역적인 도시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변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도시행정구역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평양도 그 예외가 아니다. <표 1-10>에서 보듯이 평양도 청진, 남포, 개성 등 직할시와 함께 광역기능적 도시로 편성되어 있다.

<표 1-10> 평양특별시 구획현황

1944년 (해방전)		1990년 현재				
1. 중구		1. 외성구역	7. 대성구역	13. 형제산구역	19. 승호구역	
2. 남구		2. 평천구역	8. 大同江구역	14. 순안구역	20. 상원군	
3. 동구		3. 보통강구역	9. 동대원구역	15. 용성구역	21. 중원군	
4. 서구		4. 大同江구역	10. 낭낭구역	16. 삼석구역	22. 강남군	
5. 북구		5. 모단봉구역	11. 선교구역	17. 사동구역		
		6. 서성구역	12. 만경대구역	18. 역포구역		
계	5구획	19구역 3군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앞의책 74

1944년 일제때는 5개구로 형성되었던 평양이 1990년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19개구역과 3개군을 합쳐 22개 하위단위를 포함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1950년대 2개도를 신설하여 한국과 같이 9개도제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점과 우리가 인천, 부산, 대구 등 3개 직할시를 갖고 있을 당시 북한도 3개 직할시를 유지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의 수도 서울이 22개 구청을 갖게 됨에 따라 북한의 수도 평양도 22개 하위단위조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¹²⁾

22개 區域, 郡을 포괄하고 있는 평양의 도시계획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1950년대 전쟁 복구사업이 헝가리, 불가리아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과 대조적으로 1960년대가 되면서 북

한의 사회주의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김일성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앞의 <표 1-9>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의 다른 大都市들이 1970년 이후에 와서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한것과는 달리 평양은 이미 1960년 초에 都市基本計劃의 방침이 확정되었다. 김일성이가 직접 현지에서 지시했다는 기본방침과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¹³⁾

12) 이런 공간단위가 일치되는 경향은 남한의 통일방안이 인구비례에 의한 선거인데 비해, 북한은 행정구역단위를 기준으로 선거를 하자는 주장에 비추어 볼때 행정구역을 한국측과 같은 수로 개편하는 것은 흥미로운 조치로 분석된다.

13) 김영규, 앞의책 1988, 17면

즉 평양도시개발의 기본방향을 첫째, 국제 표준도시화로 하고, 둘째, 사회주의 모범도시를 건설하며, 셋째, 김일성혁명 및 위상화 등의 세가지이다.

이와같은 세가지 기본방침에 의해 평양은 다음 다섯가지 개발목표에 치중하였다.

① 도로확충을 통해 가로망 포장 및 정비 사업을 벌였으며, ② 도로변에는 고층 APT를 집단화하고, ③ 대규모문화시설을 구축하였으며, ④ 김일성기념물을 건조하고, 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호텔, 위락)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였다.

북한은 이와같은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력동원의 수단으로 「수도건설 돌격대」를 1977년에 조직하였다.¹⁴⁾

(3) 평양의 都市機能配置

평양의 도시공간구조는 크게 동서축과 남북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보조축이 여러개 형성되어 있는 방사형도시이다.

<그림 1-5>에서 보듯이 남북축은 개성-신의주를 잇는 역전거리-경흥거리-서천거리의 사이이며 이는 평양역과 서평양역을 잇는 幹線中心軸이다. 이 축을 중심으로 동북편에는 각종 문화, 교육, 위락시설들이 金日成體制 宣戰施設物과 병행하여 기존 시가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남편에는 일제때 병기재련소를 중심으로 공업지구였던 것을 6.25 때 소실되어 버리고, 그곳에 주택단지와 안골

(內谷) 체육시설 및 萬景台를 중심으로 김일성革命思想 성지를 집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평양의 중심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東西軸은 가깝게는 김일성경기장(일제당시 泮台(운동장)에서 멀리는 1972년 건축한 錦繡山 기슭에 자리잡은 김일성의 주석궁¹⁵⁾으로부터 시작하여 凱旋거리-금수거리-봉화거리-광복거리로 이어 평양 서남쪽 萬景台로 이어지는 간선도로이다.

이 동서축과 남북축으로 갈라진 평양의 도시계획과 기능배치를 보면 다음<그림 1-5>에서와 같다.

평양역과 서평양역을 중심으로한 동북지역에는 일제때부터 시가지가 형성되어 왔으나 6.25때 황폐화되었었다. 이지역을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모범도시이자, 국제표준도시로서 갖추기 위해 각종 문화, 예술, 사상을 선전하는 도시기능을 집중시켜 놓았다. 대동강변을 끼고 들어선 人民大學習堂, 청소년궁전, 각종 역사박물관, 勞動新聞社 및 노동당사가 있고, 普通江을 끼고는 만경대의 사당(전 김일성집무실)을 비롯 人民文化宮殿, 모란봉호텔, 식당과 이른바 북한이 많이 선전한 105층의 儒京호텔등이 입지하고 있다.

평양시의 도시기능배치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동강과 보통강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해왔다는 점이다. 대동강변에는 앞서 지적했듯이 주로 社會主義體制的 우월성과 국제표준도시건설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넓은 公園과 체제선전적인 기능들을 배치하

14) 북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한국과 달리 민간 건설회사가 없기때문에 모든 건설사업을 국가운영에 의해 추진하므로 인력동원을 강제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돌격대, 혁명대 등 명분으로 동원하며 여기에 현역군인도 포함하고 있다.

15) 세계 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한 주경기장, 1개 경기장 9개의 경기관을 갖고 있다.

고 있다.¹⁶⁾

둘째: 보통강변을 중심으로 한 양쪽지역에는 대동강변의 특징과는 대조적으로 각종 호텔, 고급식당, 위락시설등을 포함 주로 觀光 서비스 기능들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같은 서스기능들을 역시 넓은 녹지공간을 강양변에 끼고 배치하고 있다.

셋째: 住居地域은 이 두개의 강을 제외한 중심지의 간선대로에 고층APT형태를 집단화하고 있다.

주거지를 집단화하는 것은 여러가지의 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주민을 통제하는데 용이하고 단지내의 각종 생활시설, 탁아소, 구판장...등을 갖추고 있음으로서 직장과 주택간의 거리를 단축, 교통발생을 해소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평양은 보행자가 드물다.

넷째: 1980년대에 와서는 세계의 開放化물결에 영향을 받아서 동평양지역이라고 불리는 대동강 건너 남쪽의 紋繡벌을 새로운 신도시로 개발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이 1970년대 강남을 개발하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도시개발의 南進政策이 평양에서는 1980년대에 와서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외교구역과 대학구역을 설치하여 도심지와 격리시키고 있다.

한편 평양도시개발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면 <표 1-11>와 같다.

1950년대의 평양도시개발은 주로 기존의 도시문화 및 기본시설을 복구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었다면, 1960년대부터는 점차 사회주의 건설사업과 관련시킨 도시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광장을 비롯 국립극예극장(서커스), 평양청소년궁전등이 이때에 건설되었다.

1970년대부터는 金正日시대가 시작되면서, 김일성, 김정일父子體制의 기초확립을 위해 각종혁명상상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체제강화용『기념비』와 건물들이 많이 세워졌다. 錦繡山의사당, 인민문화궁전, 김일성 종합대도서관, 만경대 김일성동상¹⁷⁾등을 건설하였음이 특징이다.

이당시 북한은 평양시가지재개발사업을 벌려 평양북부지역인 革新거리, 樂園거리, 琵琶거리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조선문화 혁명박물관, 2.8문화회관등 공산주의사상교육현장을 건설하였다. 이와같은 사업들은 북한이 특히 6개년경제개발계획(1971-1976)기간동안에 평양을 비롯 주요대도시에 이상적 사회주의건설을 부르짖으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¹⁸⁾

16) 대성구역 금수산기념, 대동강지류 합장강 상류에 있는 김일성관저는 넓이 105만평에 2층울타리를 치고 있고, 내부만 2.8km에 이른다. 이 초현대식 서구건물은 1972년 김일성의 60회생일을 맞아 金正日가 아버지 만수무강을 위해 직접 현장지도를 하여 건설하였다.

17) 평양시는 거주인당 녹지면적이 40㎡이다.(오테진, 「평양 3박4일」, 조선일보, 1990. 10. 20) 우리나라는 도시공원법상 인당 기준면적이 6㎡이고, 서울시는 여기에 미달하는 지역이 4개구에 이른다.(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서울시, 1990. 133면.

18) 북한에는 전국에 340,000개의 김일성동상이 건립되어 있다.

<표 1-11> 년도별 평양의 도시공공시설건축현황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조선미술 박물관 조선민족 박물관 조선평화 박물관 천리마국립연극장 평양중앙 식물원	평양청소년궁전 평양대극장 국립극예극장 평양동물원 어머니전시관 국립중앙도서관 김일성광장	조선박물관(72)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금수산의사당(주석궁) 黨창건기념관 중앙군중문화회관 2.8문화회관 인민문화궁전, 평양경기장 만경대혁명박물관 金日成綜合大圖書館 만경대김일성황금동상 혁신거리, 낙원거리 비파거리	養光院(목욕탕) 평양 제1백화점 평양産院 만경대 游回場 개선문, 주체사상탑 김일성경기장 인민대학습당 안골국제호텔 양각도영화관, 柳京호텔 창광거리정비, 천리마거리정비 지구, 낙원지구 대규모주택단지구 조총련전용관광호텔
특 징	기존시설건설	도시의기본문화 시설확충	당체제유지, 강화, 시설확충	대회선전시설물확충
	복구기	체제기초강화기	도심정비기	교외확장기
	6개	7개	11개	12개

1980년대에 와서는 평양도시개발의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도심부에 있는 萬景台사당에서 평양역에 이르는 동서축의 창광거리, 천리마거리를 대대적으로 재개발을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동강 건너 남쪽 지역인 문수벌과 보통강 건너편의 안골체육촌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였다.

다시말해서 1980년대의 평양도시개발의 특징은 북한주민의 사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對內用』시설물보다는 외국손님들이 평양을 방문했을때 꼭 관람을 시키는 『對外宣戰用』시설물들을 많이 건설하였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북한이 대외정책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

인 동시에 개방화물결에 소극적이거나 대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지한다.

그리고 두번째의 80년대 도시개발 특징으로는 기존 도심부개발에서 벗어나서 郊外地域의 신시가지개발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평양에는 현재 대동교를 비롯 홍부다리(건설중), 綾羅교, 玉流교, 충성교등 5개를 갖고 있다.

북한은 또한 1980년대 평양도시개발의 기본방향을 『공원속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두고 대동강과 보통강 양안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각종 위락시설을 설치하고,¹⁹⁾ 이와 때를

19) 북한연구소, 「북한경제론」, 1977. 458면

맞춰 매년 9월 5일을 도시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날로 정하고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²⁰⁾

이렇게 평양은 이미 1980년대 와서 國際都市로서의 면모를 갖기 위해 많은 개발정책을 펴 옴에 따라 그에 따른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도 없지 아니하다.

그 하나가 역시 人口增加이다. 평양이 엄격한 인구유입억제정책을 써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住宅不足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²¹⁾, 평야-남포간은 하나의 광역도시 회랑화하여 인구집중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평양은 이미 하나의 도시가 아닌 首都圈의 중심도시로서 기능을 하게 이르렀다.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이 廣域化, 교외화함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수단인 地下鐵은 아직 2개노선 밖에 없다.²²⁾

하나는 1973년 9월 개통한 남북노선(11.5km)인데, 이는 봉화(평양역출발)-勝利-통일-凱旋-戰友-붉은별(赤星)까지의 11.5km이며 붉은별에서 2개역이 더 연장건설중에 있다.

둘째는 1978년 9월 개통한 동서로선(7km)로서 이는 광복-건국-황금원-건설-혁신-전승까지인데 戰勝역과 앞의 앞의 노선의 전우역과는 서로 교차되어 환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²³⁾

1980년대에 와서는 萬景台노선(15km)을 계획, 평양역-만경대(김일성생가)까지의 지하철이 현재 건설중에 있다.

V. 맺음말

해방당시 北韓의 도시는 주로 일본의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써 개발되었으며 이들 도시의 위치역시 서울-신의주, 서울-함흥-청진을 잇는 해안도시로 육성되었다.

1944년을 기준으로 한반도의 都市數는 21개가 있었는데 북한에는 10개가 있었고 이들 대부분이 港口都市가 아니면, 공업도시로 발전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후 해방이 되고 김일성 정권이 수립되면서 북한은 이 東·西해안선축의 도시개발패턴을 내륙으로 이어주는 연계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은 평양-원산간의 高速道路와 철도의 전철화사업을 서둘러 완공하였다.

북한은 해방됨과 동시에 남한과 같은 수의 행정구역을 갖기 위해 行政區域조정작업을 단행하여 자강도와 양강도를 신설하였고 도시제도 역시 평양을 特別市로 하는 것을 비롯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오늘날 북한에는 특별시 1개, 직할시 3개,

20) 북한연구소, 월간「북한」, 1987. 7. 48-49면

평양에는 남산공원, 능라도유원지, 어린이 동물원, 동방식공원, 대성사유원지, 송산공원 등 30개의 공원, 유원지가 있다.

21)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62년 9월 5일 도인민위원회 위원장협의회에서 도시경영사업을 벌여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결의에 근거하여 1982년 8월 20일 이날을 「도시경영일」의 날로 지정하였다.

22) 북한은 문숙, 낙남거리에 3만세대부분의 대규모 APT를 건설하고 있다.(월간「북한」, 1987. 1, 48-49면)

23) 김영규, 앞의책, 163면

일반시 18개가 있다. 지난 45년간 새로 등장한 도시의 대부분이 백두산 기슭을 타고 발달한 북부지역에 위치한 사실을 볼때, 북한이 休戰線 부근의 인구·산업의 집중을 통제하고, 이들 북부지역에 軍需산업을 육성하고 공업도시를 건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방때까지만 해도 산업·인구가 주로 해안선을 끼고 발전되었던 것이 지난 45년간 북한을 이 개발패턴으로 內陸指向的인 개발을 지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도시개발정책 가운데 특이한 점은 완전하고 이상적인 사회주의 건설의 전략적 수단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는 점이다. 평양을 비롯 대도시들에는 체제유지·강화적인 각종 김일성기념관, 혁명관, 박물관, 학습당, 문화궁등을 건설하여 대외적으로 사회주의국가의 도시가 자본주의도시와 달리 넓은 녹지공간과 충분한 가로망, 그리고 공해와 범죄가 없는 이상적 도시로 가꾸고 있다는 것을 전시하려고 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도시가 주민편리, 주민본거, 주민의사등이 반영되지 않는 展示用도시로 남게되었다.

<參考文獻>

- 김영규, 「북한의 관광자원 현황과 개발실태」,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김일성(선집 제1권), 1967.
- 북한연구소, 「북한 경제론」, 1977.
- _____, 월간 「북한」, 1987.
- 손정목, 「한국개항기 도시화과정 연구」, 서울: 일지사, 1982.
- _____,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연구」, 서울: 일지사, 199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북한의 지방행정」, 1990.
- 홍경희, 「한국도시연구」, 1979.